

# 10주. 식별과 영성지도

## [Looking into the Well] 8, 9장

### 1. 침묵성찰 및 나눔

### 2. 영성지도의 주제5: 식별과 영성지도

#### ■ 식별에 대한 기초적 이해

- 요일 4:1,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 식별은 영성생활과 기도에서 가장 근본적인 주제이다.
- 식별은 우리의 개별적인 내적/외적 경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름으로써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의 전체 삶에 걸쳐서 일어나는 작업이 식별이다. 식별은 우리의 내적/외적 경험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을 포함하고 있다.
- 식별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다. 특정한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과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과제이다.
- 식별은 외적규범에만 의존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지금 여기 here and now’)**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따라야 하며, 이러한 식별 과정은 우리의 내면의 움직임(애착, 갈망, 두려움, 자유 등)을 다루어야 한다. (내 삶의 자세 가운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외적인 규범이 아니라 내적인 자기만의 영역을 다룸)
- 식별(ART)= **은사(직관) + 지식(성경, 신학) + 경험(연습, 기술)**
- 식별은 **“정답찾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 식별은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가 무엇인가 혹은 성공적인 결과를 낳는 선택은 무엇인가에만 초점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사랑에 사로잡히고 그 사랑안에 거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성공적인 선택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불편심과 자유에 이르는 과정이 핵심이다. 주어진 좋은 결과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속에 살아가는 분별의 삶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이다.
- **식별의 실제적 과정**: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을 1) 알아차리고 (awareness), 그 의미를 2) 이해하고 (understanding),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고 3) 선택하는 (action) 과정이다.
- **조건화, 습관화된 반응과 선택**: 식별이란 우리의 **조건화된 반응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살피고, 은혜를 구함을 통해 이루어진다. 성찰기도는 일상의 삶에서 행하는 실제적인 식별훈련이다.  
(관상기도는 조건화된 반응을 멈추도록 도와줌. 조건화된 반응은 선택이 아니라 리액션)

## ■ 이냐시오의 '식별 규칙'

- [영신수련]의 no. 313-336에서 정리한 식별규칙들. 첫째주간을 위한 규칙 14개와 둘째주간을 위한 규칙 8개로 구성되어 있음.
- 칼 라너: 식별의 과정을 자세하게 다룬 “최초의, 그리고 현재까지 유일한 시도”
- 영신수련은 식별에 대한 책이며 식별규칙이 영신수련에 녹아져 있다. 참고: 일러두기 6, 7, 8, 9, 10, 13
- 식별규칙은 영신수련의 역동 안에서 일차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의 기도와 식별에 있어서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영성지도에 매우 유용하다.
- 식별규칙은 이냐시오의 풍성한 개인 경험과 지도 경험(피와 땀)이 녹아들어 있다.

### 1) 첫째 주간을 위한 식별 규칙

#### [313] 서론 introduction

- “어느 정도까지 영분별을 이해할 수 있는 규칙” (Rules for understanding to some extent)
- “영혼안에 일어나는 다른 움직임들” (the different movements produced in the soul) and
- “좋은 움직임은 받아들이고 나쁜 움직임은 거부하기 위한 규칙” (for recognizing those that are good to admit them, and those that are bad, to reject them)
- “첫째 주간에 적합한 규칙들” (These rules are more suited to the first week)

(내면안의 움직임에 초점)

(내 안에 있는 모든 일을 선으로 만드는 것이 식별)

#### [314, 315] 규칙 1, 2 : **방향성(fundamental orientation)에 따른 분별**

- “대죄에서 대죄로 가는 사람들”: 선한 영은 양심을 찌르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악한 영은 계속 죄와 쾌락에 빠져있게 한다.
- “선에서 더욱 선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악한 영은 나아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놓고, 선한 영은 선을 실천하며 나아가도록 격려한다.
-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즉 기본적인 방향성에 따라 다르게 분별하여야 한다.
- 이냐시오의 예) 죄책감으로 회개하고 회심 vs. 죄책감으로 자살 충동을 느낌

#### [316, 317] 규칙 3, 4 : 두 가지의 내적 움직임 (Spiritual Consolation and Desolation)

3. Consolation (영적 위안/위로) : 위안이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영혼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내적 경험을 말한다. 위안의 경험은 영혼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을 자라게 하고, 평안, 기쁨, 감사, 회개의 눈물과 같은 정감(affection)을 불러 일으킨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준다. Consolation은 보통 성령의 영향으로 주어진다.

4. Desolation (영적 황폐/실망) : 황폐는 위안과 정반대되는 것으로서,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내적 경험을 말한다. 황폐의 경험은 일반적으로 영혼 안에 혼란, 두려움, 불안, 동요 등의 정감을 불러 일으키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일으키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사라지게 한다. Desolation은 보통 악신의 영향으로 주어진다.

- 정감과 방향성이 위안과 황폐를 구분하는 기준이며, 이 중 방향성이 더욱 우선하는 기준이다.
- Easy Consolation, Hard Consolation, Easy Desolation, Hard Desolation

(방향 옳고, 정감 옳고) (방향 옳고, 정감 어렵고) (방향 틀리고, 정감 좋고) (방향 틀리고, 정감 틀리고)

[318-321] 규칙 5-8 : Desolation에 대처하기

5. 일단 Desolation 상태일 경우에는 이전에 했던 결정을 바꾸거나 새로운 결정을 하지 않는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사역을 내려놓음)
  6. Desolation이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에 저항하면서(against) 오히려 기도에 매진한다. — “기도와 묵상에 더 매진하고, 성찰을 더 자세히 하고 그리고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고행을 늘려가는 것으로 이 황폐함에 거슬러서 우리 자신을 힘껏 변화시키는 것” — 일러두기 13 “황폐함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 시간보다 좀 더 머물러 있어야 한다” (위로, 실망은 오고 가는 것, 호들갑 떨지 말 것)
  7. 우리의 본성의 능력만 지닌 상태로 내버려 두신 듯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항상있음과 이미 충분한 은혜(sufficient grace)가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 “영원한 구원을 위한 은총만은 충분히 남겨 두셨기 때문이다”
  8. 곧 consolation의 은혜가 올것을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린다(persevere in patience).
- 결론: 황폐함에 저항하고 소망가운데 인내한다.

[322] 규칙 9 : Desolation이 주어지는 세가지 이유

- 우리의 게으름과 실수로 인하여: “미지근하고 게으르고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 우리의 신앙과 사랑을 시험하기 위하여: consolation이 없이도(“보상이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인내하는지를 시험하는 시간이다.
- 자기를 알게 하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겸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두 우리 주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총임을 우리가 내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323-324] 규칙 10, 11 : Consolation의 때에 준비

10. 곧 Desolation이 찾아올 것을 예상하면서 힘을 모으고 준비하여야 한다.
11. Desolation의 때를 기억하며 겸손을 잃지 않는다.
  - 규칙 5-8에서 황폐함의 때에는 위안의 때를 소망하고 인내하라고 권면하였고, 위안의 때에는 황폐함의 때를 예상하고 준비하라고 권면한다.

[325-327] 규칙 12-14 : 악한 영의 전략과 대처 3가지

12. 강하게 저항하라: “적의 유혹들에 과감하게 정면의 맞서 저항하고 상대와 정반대로 행동한다면 적은 약해지고 용기를 잃고 유혹을 중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13. 숨기지 말라: 영적인 문제가 있고 힘들 때 믿을만한 영적 리더나 친구들에게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14. 자신의 반복되는 약점을 깊이 성찰하고 이해하라: 약점을 찾는 군대장관 이미지

**2) 첫째주간(초보자를 위한) 영성지도 포인트**

-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피지도자들은 영적 황폐함의 경험을 보통 잘 다루지 못한다. 황폐함의 때에 절망하고 좌절하며 이 경험을 장애물로 여긴다. 영성지도자는 피지도자의 황폐함의 경험을 들으면서 그와 함께 좌절하거나 너무 빠른 해결을 제공하려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황폐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느끼는 절망감과 반응이 문제다. 영성지도자는 영적 황폐를 하나님께서 피지도자를 형성하시는 시간으로 보는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 피지도자가 인내하고 기도에 충실하도록,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형성하시는 손길에 협력하도록 도와야 한다.
- 첫째 주간(초보자)은 전통적 영적발달로 보면 ‘정화’의 단계이며, 이 단계에 있는 피지도자는 아직 내적 자유가 부족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며 부적절한 애착에 묶여있는 상태이다. “영적 위안과 황폐함은 부적절한 애착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질 때 경험되어진다.”(모린 콘로이) 특별히 황폐함의 경험은 우리에게 자신의 애착, 연약함, 부자유함에 대한 지식을 선물한다. 자기지식은 우리를 겸손으로, 또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러므로 영성지도자는 피지도자가 황폐함의 경험을 무조건 거부하기보다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고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도록 격려해야한다.
- 영적 황폐함은 영적 위안만큼이나 하나님 중심적인 경험(God-centered experience)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황폐함도 경험하기 때문이다. - Jules J. Toner
- 즉 황폐함은 하나님의 통제아래에 있는 경험이며, 하나님은 이 경험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형성하신다.
- 첫째 주간은 피지도자의 죄를 다루는 단계이고, 자신의 연약함과 죄에 대한 집중은 피지도자를 지나친 자기 몰두와 자기 검열(self-introspection)로 빠져들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성지도자는 피지도자의 연약함과 죄를 강조하기보다 하나님의 강하심과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 영성지도자는 피지도자가 영적 황폐함의 경험을 하나님의 처벌이나 기뻐하지 않음(displeasure)의 결과로 해석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 영적 황폐함으로 보여지는 상황이 육체적 혹은 심리적 원인에 기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반영성적(anti-spiritual) 경험이 아니라 비영성적(non-spiritual) 경험인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적절하게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 피지도자가 악한 영의 활동과 존재에 대해 지나치게 의식하고 집중하지 않도록 돕는다. 악한 영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피지도자를 두려움에 빠지게 할 수 있고 악한 영과의 관계맺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영성지도자는 피지도자에게 함께하시는 예수님께,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맺음에 집중하도록 돕는 것이 좋다.
- 영성지도자는 피지도자에게 살아있는 모델(living model)로서 그의 여정에 동반한다. 실제적 경험을 통해 체득된 황폐함의 유익과 선물에 대한 확신을 기초로 영성지도자는 피지도자가 황폐함의 때를 잘 통과하도록 격려한다.

### 3) 둘째 주간을 위한 식별규칙

#### [328] 서론 Introduction

- “더 높은 영의 식별로서, more accurate discernment or greater discernment...”: 첫째 주간의 단계에 있던 사람과 다르게 둘째 주간의 단계에 들어선 사람은 악한 영이 다른 방식으로 속이기 시작한다. 즉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꾸민 악한 천사 under the appearance of an Angel of Light or good ([332] 규칙 4)”로 나타나 마치 영적 위안의 상태에 있는 것처럼([332] 규칙 4, “신심있는 영혼에 맞추어 들어가”) 교묘하게(subtly) 속임을 통해 선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게 한다. 그러므로 더욱 정확하고 성장된 식별능력이 필요하다.
- “둘째 주간에 더 적합하다 more suitable for the Second Week...”: 더 성장된 기도자를 위한 규칙
- 둘째 주간의 식별규칙은 ‘거짓 위안 false consolation’에 대한 것이다.

#### (333-334) 규칙 5-6 : 전체 과정을 잘 살펴보라

- “우리는 사유 과정을 잘 살펴야 한다”
- “시작과 중간과 끝이 다 선하고 모두 선으로 기울고 있다면 이는 선한 천사에게서 오는 표징이다”
- “그러나 ... 어떤 나쁜 것으로 끝나거나, 산란해 지거나, ... 덜 선하게 되거나, ...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분명한 표징이다”
- “즉시 적이 그에게 처음 가져다준 선한 생각들의 과정을 보고 review immediately the whole course of temptation”: 악한 영의 속임수를 알아차렸다면 바로 즉시 그 속임수의 전체 과정을 돌아보아야 한다. 어떻게 발생해서 어떻게 점차적으로 악한 결과로 이어졌는지 돌아본다.

- "이렇게 하는 까닭은 이 체험으로 알고 주의해서 앞으로 적의 상투적인 속임수(customary deceits)에 맞서 자신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이다": 이런 성찰의 목적은 우리의 분별력을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이 성찰을 통해 보통 자주 빠져들게 되는 속임이나 묵임의 패턴을 알아차리게 되고, 나중에 같은 상황에서는 파괴적 결과에 이르기 전에(end), 중간에 (middle) 혹은 시작부터 (the beginning)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335] Rule 7 : 속임수의 시작부터 알아차리려면...

- “선에서 더 큰 선으로 나아가는 사람 안에서 from good to better” 혹은 “악에서 더 큰 악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from bad to worse”: 피지도자의 방향성에 따라 다른 분별이 필요하다
- 물방울이 스폰지에 떨어지는 것 혹은 돌 위에 떨어지는 것의 차이: “선에서 더 큰 선으로” 나아가는 상태일 때 선한 영의 움직임은 스폰지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소리를 내지 않는다. 반대로 악한 영의 움직임은 돌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소리를 일으킨다.
- 반대로 “악에서 더 큰 악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악한 영은 스폰지에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알아차리기 어렵도록 부드럽게, 선한 영은 돌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소리를 일으킨다.
- 이냐시오의 예: 신학공부 중에 반복적으로 찾아온 환시 체험

■ **결정과정과 식별**

- 식별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능성들 중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 모든 선택과 결정에는 식별이 요구되나 특별히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 이미 선과 악이 명확한 이슈에 대한 특별한 식별과정은 불필요할 것이다. 이냐시오의 식별은 좋은 것들 중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것이다.
- 영적 자유/불편심: 모든 결정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 자유가 주어져 있는가이다.
- 바른 선택이란 A or B중에 바른 한 가지를 택하는 것이라기보다, 내적 평화, 두려움과 애착에서 자유함에 이른 후에 하는 선택을 말하는 것이다.

1) **식별을 통한 결정과정의 일곱단계**(엘리자베스 리버트, [영적 분별의 길])

결정이슈는 명확히 하기 Clarifying the Issue

- i. 결정 이슈를 분명히 결정한다
- ii. 그 문제와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모으고 평가하라.

## 결정 과정 Decision-Making Process

- iii. 성찰하고 기도하라: 영적 위로와 영적 실망의 움직임을 성찰한다.
- iv. 영적 자유함을 추구하라: 불편심(indifference)의 추구, 갈망의 정화를 통해 더 깊은 갈망을 가짐.
- v. 잠정적인 결정(tentative decision)을 내리라.

## 확증 과정 Confirmation Process

- vi. 확증(confirmation)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주어질 때 그 뜻을 행하려는 결심을 새롭게 하고, 성급한 결론에 이르는 경향을 막기 위한 것. (영적 위안 혹은 전통의 시금석)
- vii. 결정과정을 평가하라: 결정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써 확증하는 것 혹은 이미 결정하고 행하고 있는 중에 만나는 새로운 상황에서 지난 결정을 돌아볼 수 있다. 이는 새로운 분별상황으로 연결된다

## 2) 결정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포인트

- 개인화 과정 필요: 당신의 분별을 결정이슈의 크기에 맞게, 사용 가능한 시간에 맞게, 상황에 맞게 개인화하라.
- 식별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식별에 절대적인 확실함은 없다. 상대적인 확신이다. 식별을 잘 거치면 결과적으로 항상 옳다든지 모호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분별과정과 선택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분별과정을 거치고도 우리는 불확실함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 분별은 옳은 결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다: 분별은 결정안에서 그리고 그 결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다.
-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맺음이 이 식별과정을 통해 깊어진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내적 지향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식별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내적 성장과 그 결과로 따라오는 외적 열매를 기다리신다.
- “당신이 내린 결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든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한다는 것을 믿으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결코 영적 분별에 실패할 수 없다. 형편없는 선택이 반드시 나쁜 분별은 아니다. 왜냐하면 분별은 어떤 결과가 빚어졌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와 갈망에 대한 우리의 민감성이 얼마나 증대되었느냐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 ■ 참고도서

- 티모시 갤러히, [영의 식별 The Discernment of Spirits: An Ignition Guide for Everyday Living], 이냐시오 영성연구소
- Timothy M. Gallagher, O.M.V., [Spiritual Consolation: An Ignatian Guide for Greater Discernment of Spirits]
- Timothy M. Gallagher, O.M.V., [Discerning the Will of God: An Ignatian guide to Christian Decision Making]
- 엘리자베스 리버트, [영적 분별의 길 The Way of Discernment]
- Wilkie Au & Noreen Cannon Au, [The Discerning Heart: Exploring the Christian Path]
- Wilkie Au, “Holistic Discernment” in [Presence: An International Journal of Spiritual Direction], vol 11, no. 1 (Feb 2005).
- Ernest Larkin, [Silent Presence: Discernment As Process and Problem]
- 토머스 그린, [밀밭의 가라지: 기도와 행함이 만나는 곳, Weeds Among the Wheat: Discernment, Where Prayer & Action Meet]
- 헨리 나우웬, [분별력 Discernment]

### 3. [Looking into the Well] 8장, “Developing a Discerning Heart: Seven Phases of the Supervision Experience” 발제

### 4. [Looking into the Well] 9장, “The Supervisor’s Discerning Heart: Reflecting on the Supervision Experience” 발제

### 5. 기도과제/읽기자료/광고

- 기도과제: 마가복음 10장 17-22절
- 읽기자료1: 오방식, “오늘의 영성지도와 신학교육: 제 4차 산업기술혁명 시대의 관점에서”
- 읽기자료2: Kathleen Bryant, RSC, “Being Contemplative in a Digital Work” in Presence, no. 18, vol. 2(Sept 2012)
- 읽기자료들을 읽고 3개 이상을 질문을 적어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